[디오르비] 2023 추석특강 EBS 수특/수완 문학총정리 강의계획서	
선생님	유현주 선생님
슬로건	유현주 수능 국어 2023 수능 대비 **파이널 + a !** 《유현주 국어 **Final + [추석특강]**》 **(특강 참석자는 복습 인강 제공 가능[4주])**
강좌명	**《EBS 문학총정리 수능특강 (1회) + 수능완성 (1회) = 총2회》**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학년	고3 및 N수생 **(EBS 정리가 안 되어 있던 학생도 들을 수 있도록** 전체 작품들을 모두 정리하는 강좌입니다 + 특강 이후 복습 영상[4주]도 제공합니다)
수업시간 및 회차	**9/9(금) 'EBS 수능특강 문학 필수 작품 분석'** 1. 내용 : EBS 수능특강 문학 필수 작품 분석 2. 시간 : PM 18:30~22:00 (디오르비-대치) 3. 교재 : 추후 안내 예정 4. 수강생 혜택 : 교재는 작품 정리 위주로 구성된 분석서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현주 국어에서 준비한 EBS 연계 문학 추가 기출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5. 수강료 : 1회당 7만원씩 **+** **9/10(토) 'EBS 수능완성 문학 필수 작품 분석'** 1. 내용 : EBS 수능완성 문학 필수 작품 분석 2. 시간 : PM 18:30~22:00 (디오르비-대치) 3. 교재 : 추후 안내 예정 4. 수강생 혜택 : 교재는 작품 정리 위주로 구성된 분석서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현주 국어에서 준비한 EBS 연계 문학 추가 기출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5. 수강료 : 1회당 7만원씩

2021~2023 6월 / 9월 /수능 현대소설 EBS 비수록 지문까지 적중했습니다!

1) 문학 중요도 A++ (현대소설 A)에서 적중했습니다.

: 6모 전 배포한 문학 중요도 자료와 현주간지 교재들에서 A++ ~ A 에서만 모든 작품 적중했습니다!!
특히, 현대소설의 경우 EBS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인데 현주간지에 수록되어 있던 지문 전체가 그대로 6모에 수록되어 높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9모 역시 EBS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인데 현주간지에 수록되어 있던 지문 중 일부가 9모에 그대로 수록되었습니다.

끝이 있는 국어
유원주 국어

< 2021 6월 모의평가 + 현주간지 적중내역 >
EBS 연계 지문 100% 적중 [A++ ~A]
+
비연계 지문까지 적중!

모두 **A++ ~A** 에서 적중되었고,
현대소설은 **EBS에서 수록되지 않았던 부분** 이
현주간지 11주차에 수록된 부분
전문이 그대로 출제 되었습니다

고전시가: 정철 관동별곡 [적중도 A++]
현주간지 13주차 수특 (EBS 비연계 적중)

현대시: 조지훈 산상의 노래 [적중도 A++]
현주간지 23주차 수록, 12주차, 5주차 수록

고전소설: 전우치전 [적중도 A++]
현주간지 20주차 수록, 17주차 수록

현대소설: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적중도 A]
현주간지 11주차 수록
(EBS 비수록 부분, 현주간지 전문 그대로 출제)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분석한

문학중요도 A☆☆☆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현주간지 3월호 11주차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밤길을 도와 백 리 길을 걸어서 어머니가 혼자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던 황만근은 평생을 좌우할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당시에는 군청이 있는 읍에서 신대리까지 오는 버스도 없었고 있다 해도 끊어질 시각이라 산길로 오는 게 빨랐는데 네 개의 봉우리를 돌거나 넘어야 했다. 그중 네 번째 고개의 이름은 토끼 고개[illegible] 왔다 싶었는데, 어[illegible]

[illegible] 검지손가락만 [illegible]다. 무슨 불빛이 있어서 반짝이 [illegible]까지 했느냐고. 초봄이라 토끼 고개에는 눈이 채 녹지 않고 있었다. 하다못해 별빛에라도.

"그기 뭔 소리라? 내가 내 집에 내 발로 가는데 니가 뭐라꼬 집에 못 간다 카나. 귀신이마 썩 물러가고 토끼마 착 엎디리라. 내가 너를 타고서라고 집에 갈란다."

거대한 토끼는 황만근이 한 번도 맡아 본 적이 없는 비린 냄새를 풍기면서 느릿하고 탁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집에 못 간다."

황만근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란 털은 모두 위로 곤두섰다.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토끼를 밀치며 "비키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토끼를 밀친 황만근의 팔이 토끼의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진공청소기에 빨려 드는 파리처럼 쑤욱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다(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 씨의 표현이다). 황만근은 한 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으면서 빨려 들어간 팔을 도로 빼려고 안간힘을 썼다. 황만근을 빨아들이려는 공간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허전했고 또한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토끼는 토끼대로 쉽게 끌려 들어오지 않는 황만근을 마저 끌어 들이기 위해 온몸을 떨면서 뒷발을 든 채 버티고 있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하염[illegible]었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illegible]러자 토끼는 황만근 [illegible]에 살았다. 너는 이 [illegible]다. 황만근은 오기 [illegible]방으로 끓이서 어 [illegible]끼다. 니 가죽을 [illegible]하고 장갑을 할 [illegible]스리쳤다. 토끼 [illegible] 팔을 빼겠느 [illegible]고 있는데 토 [illegible]서 되는 대 [illegible]까잇 거는

[illegible]이가 팥죽 할마이겉이 오래오래 사는 거다."

(팥죽 할마이란 팥죽을 파는 할머니, 혹은 늘 팥죽을 쑤고 있는 할머니 같은데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어째서 오래 산다고 하는지 민 씨는 모른다.)

토끼는 마을이 있는 서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몸을 소스라치게 떨고 나서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들어주었다. 그 다음은?"

"여우 겉은 마누라가 생기는 거다."

"송편을 세 번 먹으면 네 집으로 올 거다. 다음은 무엇이냐?"

"떡두깨(떡두꺼비) 겉은 아들이다."

"마누라가 들어오면 용왕이 와서 그렇게 해 준다. 이제 나를 놓아라."

"내가 언제 니를 잡았나. 니가 가 뿌리만 되지, 바보 자슥아."

그러자 토끼는 속았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을 무섭게 부풀리더니 황만근의 얼굴에 뜨겁고 매운 김을 내뿜었다. 황만근이 눈을 뜨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간신히 떠 보니 어느새 자신의 팔이 돌아와 있는 것이었다. 황만근의 주변에는 토끼털이 무수히 떨어져 바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황만근은 제대로 숨 쉴 겨를도 없이 집으로 달려갔

현주간지 3월호 11주차
98p 적중 !!
EBS 수록 X 부분
현주간지 전문 그대로 적중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분석한

문학중요도 A☆☆☆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다. 동네 곳곳의 닭들이 횃대에서 소리쳐 울고 있었다. 황만근은 밖에서 "어무이, 어무이!" 하고 소리치면서 마당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방 안에 들어가 보니 그의 어머니는 그가 나갔을 때의 모습 그대로,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해 앉아 있었다.

"어무이, 어무이!"

그가 어깨를 흔들자 젊은 어머니는 모로 쓰러져 버렸다. 그러면서 "카악!" 하고는 목에서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 냈다. 황만근이 어머니를 껴안고 통곡을 하다가 손발을 주무르고 온몸을 어루만지자 어머니는 눈을 떴다.

"니 와 인자 왔노?"

"밤새도록 토깨이 귀신하고 씨름을 하다 왔다. 니는 괘않나."

"니 기다리다가 아까 해 뜰 녘에 닭이 울길래 밥 한 덩이를 입에 넣었다가 목이 맥히서 죽을 뿐했다. 움직있다가는 더 딱힐 것 같애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모하고 이래 니가 오기 기다리고 있었니라. 이 문디 같은 놈의 자슥아, 와 밥만 해 놓고 물은 안 떠다 놨나!"

황만근은 울다가 웃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러고는 어머니에게 엉덩이를 채어 물을 뜨러 동네 우물로 달려갔다. 그날 우물가에서는 황만근의 기이한 체험이 여러 사람의 입으로 하루 종일 수십 번 되풀이되었고 종내 황만근이 우물가로 초청되어 입이 아프도록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아야 했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01 윗글의

① 어리석

화하고

② 서술자

석, 평가

③ 서술자가

관심을 높

④ 이야기 내

면을 드러내

⑤ 등장인물이

의 행동을 전

0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황만근뿐만 아니라 토끼도 둘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안간힘을 써야 했다.

② 황만근은 토끼가 남기고 간 덫을 주워 와서 자기 이야기의 증거로 삼았다.

③ 황만근은 토끼의 위협에 겁이 났지만 오히려 으름장을 놓으며 저항했다.

④ 밤새 토끼와 대결한 황만근은 날이 밝을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⑤ 황만근은 토끼를 만난 일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도 일관성을 유지했다.

현주간지 3월호 11주차
98p 적중 !!
EBS 수록 X 부분
현주간지 전문 그대로 적중

현대소설은 EBS에서 다뤘던 작품이지만
EBS에 수록된 부분이 아니라,
현주간지 11주차에 나온 파트가
전문이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분석한
문학중요도 A++
정철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고전시가 38~40번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나)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금강대'에서 '정철대'로 이동하면서 지면에 대한 화자의 이동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② '정철대'와 '물염대'에서는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③ '계심대'에서는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화자가 바라본 풍경과 그에 대한 감흥이 서술되고 있다.
④ '화봉소'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정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며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⑤ '화봉소'에서 '풍월대'까지의 이동 경로를 드러내지 않아 시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39.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루리를 '무용'할 것으로 '백옥'을 품은 듯한 시각적 형상으로 묘사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② 부루리를 '백옥',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어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하였다.
③ 부루리를 '동명'을 바라고 '옥구'를 받치는 듯한 모습에 빗대어 대상의 충성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④ '남거든 뛰디 마나 성거든 솟디 마나'와 같이 병렬을 무각하는 대구를 통해 부루리의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⑤ '고맙다 짖', '백박는 짖과 같이 상황나 동작을 보여 주는 우리한 동사 구조의 나열을 통해 부루리의 다채로운 면모를 표현하였다.

4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에 하늘의 이치[天理]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 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한편 「관동별곡」의 작가는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표시함으로써 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었다. 또한 그는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① '형상'을 '천연성'이 지니도록 공히 있는 존재로 본 것은,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자연에 투사한 것이군.
② '계심대'에서 '너 긔somet 흐터 내야 인정을 만물셰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작가가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③ '중향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것은,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인식을 보여 주는군.
④ '물염대'에서 본 적포의 바윗돌을 '성'이나 '벽'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은, 자연을 사실감 있게 나타내려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군.
⑤ '물염대'에서 본 풍경을 중국의 '여산'과 비교하여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은, 관념이 아닌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작가의 자세임을 보여 주는군.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분석한
문학중요도 A++
정철

현주간지 4월호 13주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자기 가운데가 되게 구멍이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바로 벽화단이었다. 주위가 1리 남짓하고 수면이 답답한데 반은 물이고 반은 땅음이었다. 홍수나 가뭄에도 물이 줄거나 불지 않는데, 맑은 못은 투명에, 깊을 꼿은 뿌리에 찾으며 맑고 깨끗하여 조금의 먼지 기운도 없으니 은연히 신선이 사는 듯하였다. 시방을 둘러싼 봉우리들도 높고 낮음이 모두 굳둥하니 창으로 천부의 성곽이었다.

석벽에 매달려 백옥담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더가 털퍽 주저앉아 장전 호사을 취했다. 힘해은 모두 지체시 남은 힘이 없었지만 세속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최고봉이므로 조심스럽게 조금씩 [illegible]

현주간지 4월호 13주차
55p 적중 !!
EBS 비연계 작품도 적중 !!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분석한
문학중요도 A++
전우치전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고전소설 41~45번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분석한
문학중요도 A++
전우치전

현주간지 5월호 20주차

EBS 수록 본문

전우치전 - 작자 미상

현주간지 5월호 20주차
168p 적중 !!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분석한

문학중요도 A++ ★★★★★★★

조지훈, 산상의 노래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현대시 시22~24번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높으디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A]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펼던 샛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B]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나)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 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 먹는다는 것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풍경을,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②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③ (가)는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고, (나)는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와 (나)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도치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3.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의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③ [A]의 '긴 밤'에 담긴 무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펼던 샛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⑤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무의 수사학 1」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 것이다.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분석한

문학중요도 A++ ★★★★★★★

조지훈, 산상의 노래

현주간지 6월호 23주차

작품 본문

산상(山上)의 노래 - 조지훈

높으디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1연: 광복을 염원한 화자의 간절함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
꽃다운 ...
내 영혼의...
어둠 속에...

3연: 광복을 맞이한 민족의 현실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4연: 민족의 앞날에 대한 기대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5연: 회복되어 가는 민족의 정기

현주간지 6월호 23주차 45p 적중 !!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제출한

EBS 연계 변형 지점 적중

과거제 지문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비문학 16~21번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 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 준다.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 냈다.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천 년이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 준다.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다.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군의 유럽 계몽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

(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인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다. 고염무는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지방관인 지현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 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 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종희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소'와 같은 옛 제도를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라는 압력이 있었다.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다.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낳았다. 또한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의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다.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었다.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에, 지역 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의 부정적 결과로 인식되었다.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천거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던 것이다.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외의 정치 체제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은 단순히 복고적인 것이 아니었다.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을 역사적 경험에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16. (가)와 (나)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사상가들의 견해를 언급하며 특정 제도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을 비교하면서 특정 제도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⑤ (가)는 특정 제도의 발전을 통시적으로, (나)는 특정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공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제출한

EBS 연계 변형 지점 적중

과거제 지문

현주간지 3월호 9주차 수특 독서 50p 지문 분석

토픽 배경지식

- ▶ 관학: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이다.
- ▶ 사학: 사학은 두 가지가 있다. '4'의 사학이 있고, 공과 사의 사학이 있다. 지문에서는 후자를 뜻한다. 간단히 말하면 사교육이다.
- ▶ 과거제: 유교경전을 이용하여 과거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일종의 암기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
- ▶ 공거제: 조선시대의 교육 커리큘럼이다. 수도와 지방에서 명칭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동일했다.
- ▶ 균전제: 토지를 국유화(나라가 관리)하고, 선비에게 더 많은 토지를 배분하는 것이다.

추가 읽기

과거제의 문제점

현재 비슷한 제도로는 수능, 더 나아가서 학력고사가 있다. 수능과 같이 생각하는 시험이 아닌, 암기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원자의 인품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또한, 암기시험인 만큼 모범답안 족보 등이 유행하게 되었고, 이에 그 의미가 변질되기도 하였다.

연계 토픽

- ▶ 지방과 ... 사회지문 이 연계 ...
- ▶ 교육의 ... 교육의 비대칭이 있었다. 대...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반면, 지방에서는 그런 교육... 이는 자유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공급자의 선택에 따른 공급의 차...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 ▶ 고려시대의 ... 경우, 명재상 최충이 사학을 맨 처음에 설립했다. 사학에서 배출한 학생들이 대부분 좋은 성과를 거두자 그 학생은 점점 불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고려에서도 사교육 붐이 일어나게 되었고, 당시 정부에서는 장학금 제도를 만드는 등 관학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를 만들었다.
- ▶ 방향을 달리하여 지문에 제시된 내용의 전후 상황인 조선시대의 다른 교육제도(성균관)가 연계될 수 있다. 또한, 사학이 발달하게 된 배경도 연계될 수 있다. 당시 유명한 여러 유학자를 찾은 수많은 학생들이 모두 사학에 몰리며 관학이 점점 약해졌다.
- ▶ 또한, 교육이 아닌, 토지제도에 대해 연계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과전법과 직전법이 있다. 과전법은 전/현직 관료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직 관리들이 너무 많아져 새로운 관리들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만들어졌다.
- ▶ 조금 극단적으로 가면, 일제강점기의 토지제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조선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식민지적 토지소유의 기반을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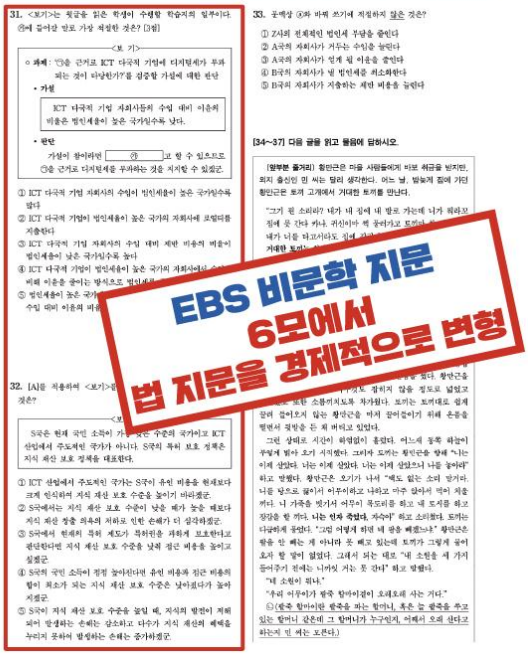
EBS 비문학 지문 6모 변형 지점과 동일하게 적중!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제출한

EBS 연계 변형 지점 적중
지식 재산 보호 지문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비문학 31~32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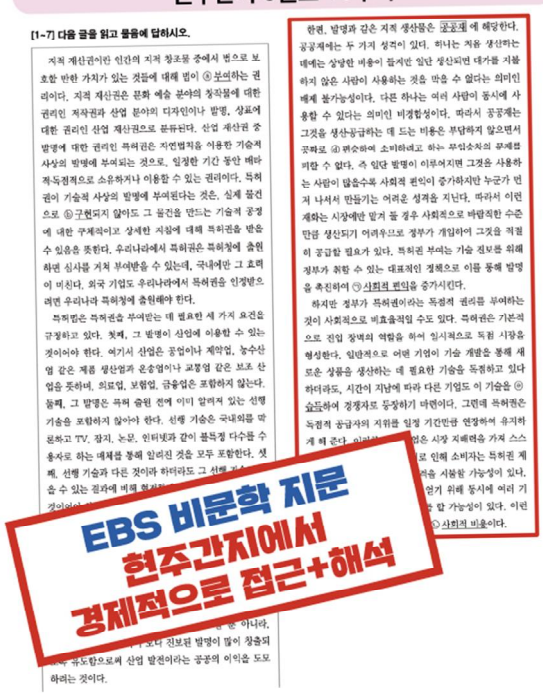
EBS 비문학 지문
6모에서
법 지문을 경제적으로 변형

6월 모의평가 적중 !!!

현주쌤이 직접 제출한

EBS 연계 변형 지점 적중
지식 재산 보호 지문

현주간지 3월호 10주차



EBS 비문학 지문
현주간지에서
경제적으로 접근+해석

< 2021 9월 모의평가 + 현주간지 적중내역 >
EBS 연계 지문 100% 적중 [A++ 3작품]
+
EBS 수록X 부분까지 현주간지에선 수록!

A++으로 선정한 작품이
무려 3작품이나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소설의 경우는 6월에 이어 9월에서도
EBS에서 수록되지 않았던 부분 이었으나,
9월 모의평가 이기영의 고향 中 중략 이후 전체 부분에
현주간지 31주차에 수록된
앞부분 전문이 그대로 출제 되었습니다.

고전소설 : 심청전 [A++ 3위]
(A++로 선정한 6 작품 중 1작품 출제) 현주간지 12주차 수록

고전시가 : 윤선도 만흥 [A++ 1위]
(A++로 선정한 1 작품 중 1작품 출제됨) 현주간지 10주차 수록

현대시 : 김수영 사령 [적중도 A++ 1위]
(A++로 선정한 2 작품 중 1작품 출제됨) 현주간지 17주차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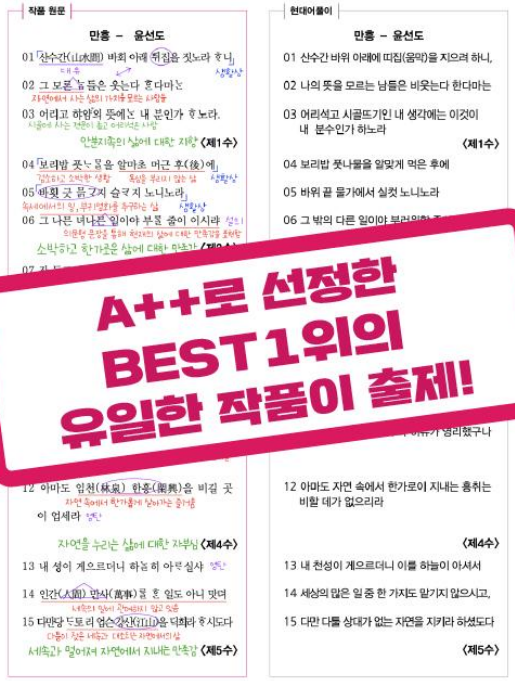
현대소설 : 이기영 고향 [B 3위]
(EBS 수록X 부분, but 현주간지 본문 그대로 일치] 현주간지 31주차 수록

9월 모의평가 적중!

현주쌤이 직접 분석한

문학중요도 A++
윤선도 만흥

현주간지 3월호 10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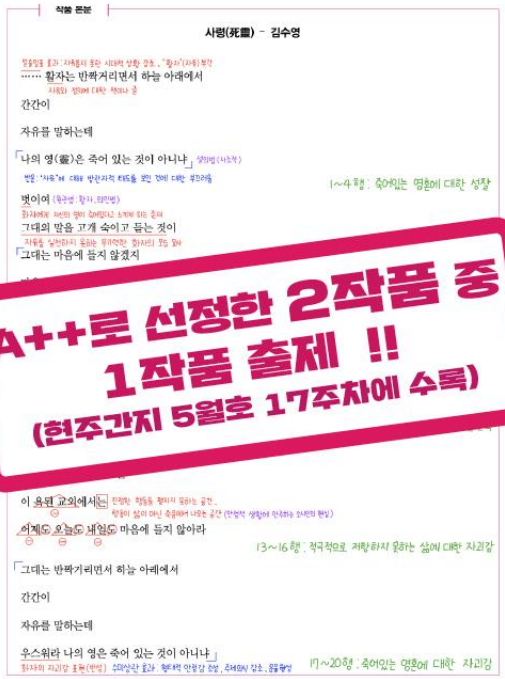
A++로 선정한
BEST 1위의
유일한 작품이 출제!

9월 모의평가 적중!

현주쌤이 직접 분석한

문학중요도 A++★★★
김수영, 사령

현주간지 5월호 17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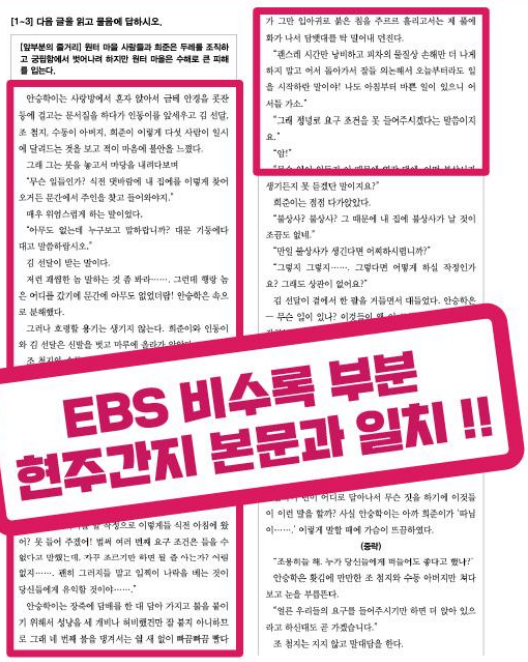
A++로 선정한 2작품 중
1작품 출제 !!
(현주간지 5월호 17주차에 수록)

9월 모의평가 적중!

현주쌤이 직접 분석한

문학중요도 B☆☆
이기영, 고향

현주간지 8월호 31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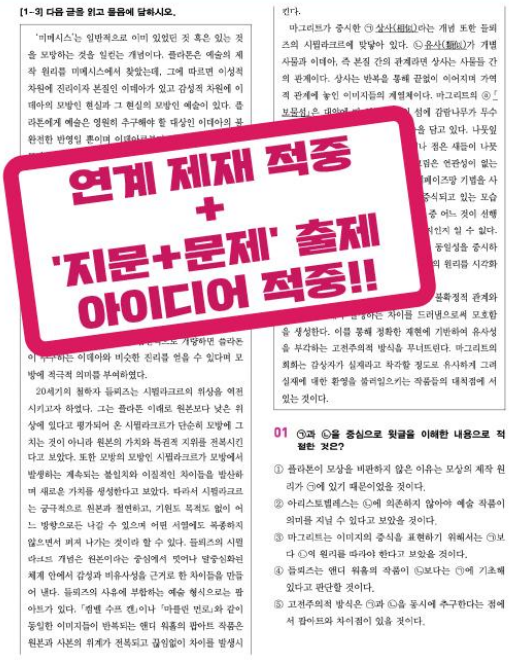
EBS 비수록 부분
현주간지 본문과 일치 !!

9월 모의평가 적중!

현주쌤이 직접 분석한

중요도 S 비문학
모방론 지문

현주간지 5월호 19주차



연계 제재 적중
+
'지문+문제' 출제
아이디어 적중!!

콘텐츠는 검증되고 실전적이어야 합니다.

1) 3년만에 인강복귀 +18,955% 매출 상승의 신화!

수많은 학생들의 요청에 3년만에 인강에 복귀했고, 복귀 첫 달만에 이전 매출에 비해 +18,955% 상승하여 강의와 컨텐츠 모두 많은 학생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유현주국어는 이제 시작이기에 더욱 열심히, 더욱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 8년 연속 1위 문법 교재, 문법의 끝(오르비 8년 연속 1위)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는 치밀한 공부법! 무수히 많은 학생들의 후기와 판매량으로 입증된 교재의 저자가 말하는 문법 개념 정리법. 개념 정리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가장 좋은 문법 공부 방법입니다.

3) 실전에 쓸 수 있는 컨텐츠(학생 스스로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기준을 잡습니다)
(거시+미시 손분석 = 거미손 커리큘럼 - 손글씨 분석서)

실전에 쓸 수 없다면 좋은 공부법이 아닙니다. 지문에 표시를 못하는 학생이나 지문에 아무렇게나 표시하며 읽어서 내용 정리가 안되는 학생들에게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체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실제로 독해 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습니다.

4) 정규 수업 그 이상의 복습 컨텐츠 '현주간지'
매주 200~250페이지 분량의 완벽한 복습 컨텐츠 제공
→ EBS 연계 문제/기출문제 + 지문 분석(미시/거시분석의 상세한 내용 분석)
+ 문항 해설(문항기준표까지 하나하나 담은 상세한 분석) + 손글씨 필기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도구들 직접 표시)

오프라인 12년, 온라인 10년의 강의 경력으로 매주 200페이지 분량의 완벽한 복습 컨텐츠인 '현주간지'를 모든 수강생에게 제공합니다. 매주 제공되는 '현주간지'에는 EBS 연계 변형 문제와 관련 기출 문제, 꼼꼼한 지문 분석(미시/거시 분석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상세한 설명 포함)에 문항 기준표까지 하나하나 담은 상세한 분석과 손글씨로 직접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필기들을 정리해서 담았습니다.

수업의 연장인 과제까지 완벽하게 복습이 가능하도록 가장 좋은 컨텐츠들을 모두 담아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춰 실전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5) 맞춤형 관리 + 1등급 도약을 위한 기출 기반 개인 트레이닝 콘텐츠
(학생 개인별 컨텐츠 제공)

최근 트렌디한 고난이도 기출 지문을 스스로 체화할 수 있는 맞춤 트레이닝 동영상과 정규 수업의 원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담겨 있는 분석 자료집이 제공됩니다. 학생 한명 한명의 성적 추이 추적 및 맞춤형 트레이닝 자료가 제공되므로, 개인별로 취약한 부분을 확실히 잡아줄 수 있습니다.

6) 대치동의 가장 좋은 자료들을 모두 제공합니다.
1년 내내 상상/한수 전체 컨텐츠 제공

시기에 맞춰 6/9월 모의평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컨텐츠들을 모두 제공합니다. 최근 많은 학생들에게 수능과 가장 근접한 난이도의 모의고사로 평가받는 상상/한수 모의고사의 모든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매주 현주간지와 대치동 현장 컨텐츠까지 모두 수업에서 제공하여 수능 전까지 양질의 컨텐츠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7) 완벽한 복습의 끝!
출석하면 모든 학생에게 복습 영상과 수업 내용을 정리한 복습시트를 제공합니다.

수업을 수강한 이후, 복습까지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영상과 텍스트 모두를 제공합니다. 복습시트의 경우, 수업 내용 전체를 문서화하여 현강을 들은 학생의 경우 텍스트만 읽어도 복습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강의는 본질을 향해야 합니다.

1) 수능 국어의 기준을 잡는 수업

안정적 1등급은 각 갈래별로 완벽히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시험장에서 어떤 지문이 와도 학생이 실제로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체화하여 시험장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수업합니다.

■ 독서 - 안정적으로 독해하는 방법의 기준을 잡은 후, → 동일하게 훈련해야 합니다.

기출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기준을 잡습니다. 최근 기출 독서의 유형들을 모두 정리하고, 긴 지문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본기를 다집니다. 기출 + 이감 모의고사&간쓸개 (EBS 변형문제)를 통해 이를 완벽히 보완하여 1등급 도약을 준비합니다.

■ 문학 - 어려운 문학에 대비하는 법! - 다시 기본으로, 문학 개념어 분석과 작품 분석을 철저하게!

EBS 연계 작품을 제대로 정리하려면, 먼저 역시 기출 문제에서 사용되는 개념어들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작품별 특성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출 + EBS 연계교재 작품 분석집 + 이감 모의고사&간쓸개를 통해 갈래별 출제되는 포인트와 문학 개념어를 체계적으로 잡습니다.

■ 화법과 작문 / 언어(언어와 매체-기존 교육과정의 '문법')

: 화작문은 최근 더욱 어려워진 파트 문법은 항상 오답률 5위 안에 꼭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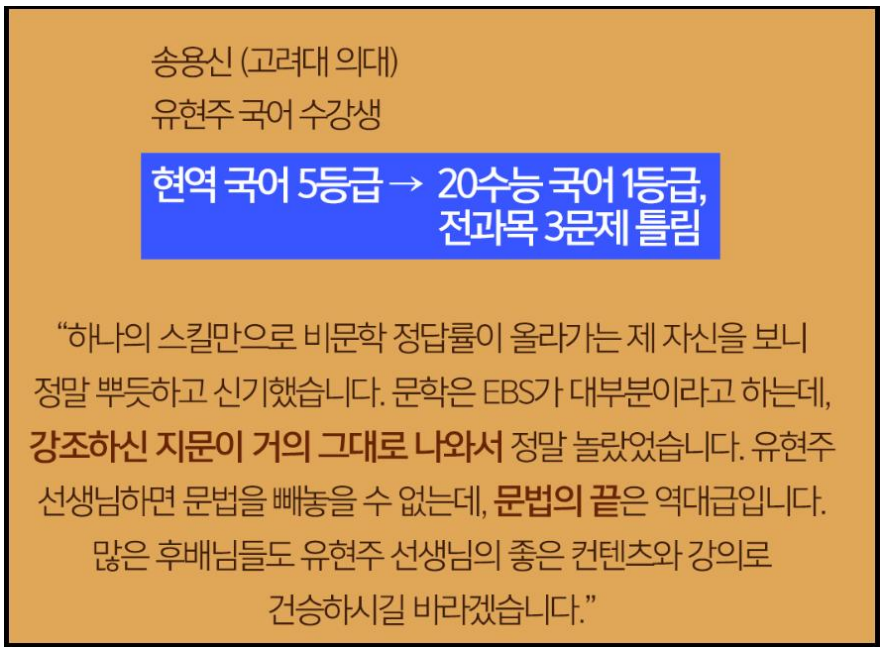
6년간 오르비 atom 문법 1위 교재인 '문법의 끝'으로 기본기를 다지고, 심화 문법 개념들을 다집니다. 화법, 작문의 경우도 EBS 지문과의 연계에 집중하여 기출 유형들을 완벽히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전에서 강한 개념 수업을 진행합니다.

2) 한 번만 강의를 들어도 수능 국어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수업과 숙제가 연결되어 학생 스스로가 분석 및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강의 구성 - 거미손 커리큘럼(거시+미시 손분석)

분석 체계가 없는 학생에게 분석의 기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독해능력향상, 작품 이해, 문항 분석, 화작문의 개념 적용이 수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거미손' 숙제 파일을 통해 수업과 과제가 짜여있어 일관된 방법을 체화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매번 수업은 촬영되어 인강으로 복습이 가능하며 학습에 필요한 추가 영상들도 무제한 제공되고, 학생 상담 및 Q&A 질답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 실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6평, 9평, 수능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실제 강의를 수강한 학생의 2020 6평, 9평, 수능 후기입니다. 그 외에 해설강의 후기도 첨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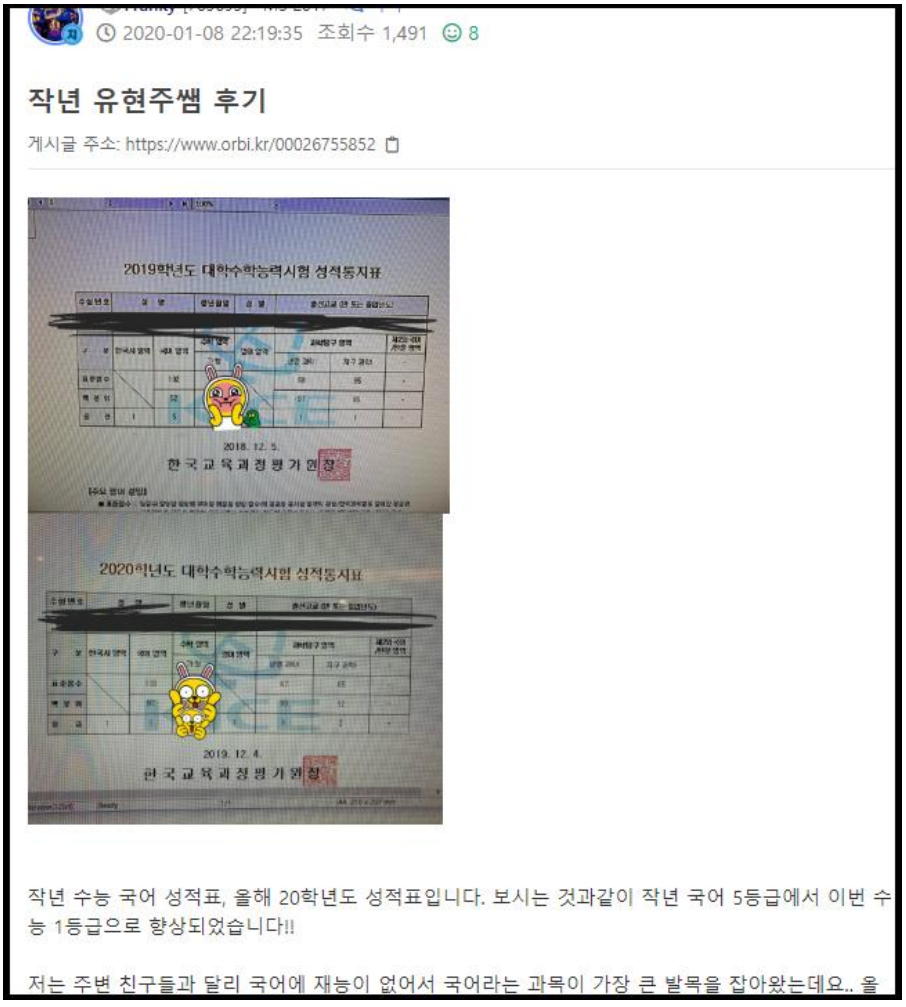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의예과 20학번 송용신 [현역 국어 5등급 → 20수능국어 1등급, 전과목 3개틀림]

비문학이 B문학인줄 알았던 학생....

안녕하세요 유현주쌤 강의를 들었었던 송용신입니다. 저는 노베이스였습니다.
그리고, 특목고였기 때문에 수능과 관련된 국어는 아예 듣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재수하며 수능 국어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마음 먹었을 때에는 심지어 비문학이 B문학인줄 알기까지 했었던 노베이스였습니다. 문학A, B하는 것처럼 수능 국어의 A문학, B문학이라는 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아무것도 몰랐던 학생이 유현주쌤을 만났고, 비문학을 대응하는 법부터 배워나갔습니다. 하나의 스킬만으로 비문학 정답률이 올라가는 제 자신을 보니 정말 뿌듯하고 신가했습니다
문학도 문학 나름대로 배워나갔는데, 각 갈래별 대응법에 맞춰 하나의 정형화된 풀이를 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특히 문학은 EBS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강조하신 지문이 거의 그대로 나와서 정말 놀랐었습니다.

유현주쌤하면 문법도 뺄 수 없는데, 하나의 큰 백과사전 같은 문법의 끝이 역대급입니다. 흔히 문법 보기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넣는다고 알려져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적당히 지엽적이면서도 수능을 위한 개념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무휴학 반수로 수능 수업은 국어밖에 듣지 않았는데 현역 때 68점(5등급)이었던 성적에서 2020 수능 국어 1등급이 나온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후배님들도 현주쌤의 좋은 컨텐츠와 강의로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광대학교 치의예과 20학번 안OO [19수능국어 5등급 → 20수능국어 1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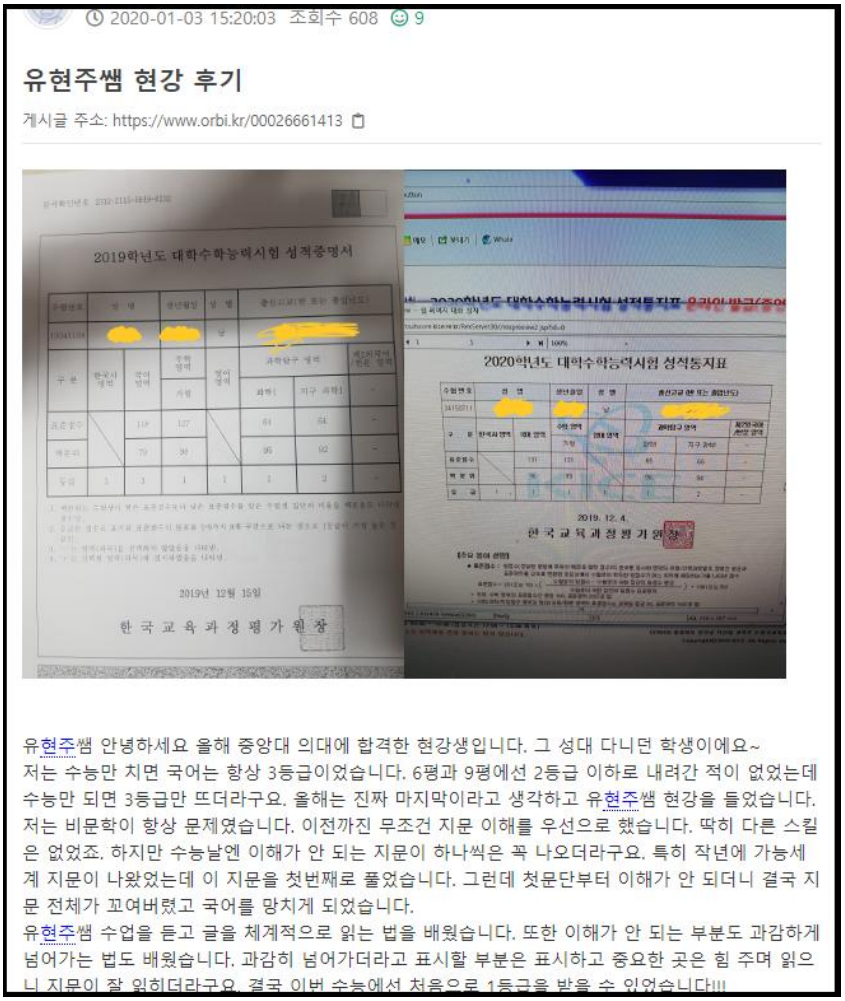
작년 수능 국어 성적표, 올해 20학년도 성적표입니다. 보시는 것과같이 작년 국어 5등급에서 이번 수능 1등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과 달리 국어에 재능이 없어서 국어라는 과목이 가장 큰 발목을 잡아왔는데요.. 올해는 더욱 더 국어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에 비해 매우 실망스러운 점수를 6월 모의평가 때 받았고. 충격으로 현강을 알아보다가 우연하게 유현주 선생님 단과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첫 수업을 받고 저의 국어 공부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비문학을 읽을 때 지문을 쭉 끝까지 읽고 난후에,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꺽쇠 괄호 대괄호( )〈 〉[ ]표시 쓰는 법을 지문에 적

용하면서 비문학을 접근해 나갔습니다. 이런 괄호 표시를 통해 어려운 비문학을 기호들로 체크하며 읽고, 문제를 풀면서 다시 지문을 찾아서 꼼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방법을 체화면서 점점 더 자신감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방법을 통해, 중요한 문장들이 눈에 확 들어와서 비문학 시간을 줄었고, 줄인 시간만큼 화작문과 문학에 시간을 쓸 수 있어서 화작과 문학 실력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특히, 거미손 분석 자료를 통해서 기출 지문들을 연습하면서 체화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한수모의고사, 화작문의 끝 등등의 양질의 자료를 마구 주셔서 자료는 절대 부족할 일이 없었습니다.(사실 저것들도 다 소화하기 힘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직접 상담, 질문도 다 받아주시는 게 전 가장 좋았습니다. 수업 내용이나 선생님 방법 관련된 질문은 조교가 아닌 선생님에게 여쭤서 해결하는 게 가장 최상이니까요. 또, 숙제도 개인별 맞춤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을 3번 보는 동안 수능을 포함한 8번의 평가원 시험에서 1등급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지만, 선생님 덕분에 마지막 수능때 1등급을 생에 처음으로 쟁취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국어 덕분에 최저도 수월하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유현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01-03 15:20:03 조회수 608 9

유현주쌤 현강 후기

게시글 주소: https://www.orbi.kr/00026661413

유현주쌤 안녕하세요 올해 중앙대 의대에 합격한 현강생입니다. 그 성대 다니던 학생이에요~
저는 수능만 치면 국어는 항상 3등급이었습니다. 6평과 9평에선 2등급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수능만 되면 3등급만 뜨더라구요. 올해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유현주쌤 현강을 들었습니다.
저는 비문학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이전까진 무조건 지문 이해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딱히 다른 스킬은 없었죠. 하지만 수능날엔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하나씩은 꼭 나오더라구요. 특히 작년에 가능세계 지문이 나왔었는데 이 지문을 첫번째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첫문단부터 이해가 안 되더니 결국 지문 전체가 꼬여버렸고 국어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유현주쌤 수업을 듣고 글을 체계적으로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과감하게 넘어가는 법도 배웠습니다. 과감히 넘어가더라고 표시할 부분은 표시하고 중요한 곳은 힘 주며 읽으니 지문이 잘 읽히더라구요. 결국 이번 수능에선 처음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의예과 20학번 양재현 [19수능국어 3등급 → 20수능국어 1등급]

유현주쌤 안녕하세요 올해 중앙대 의대에 합격한 현강생입니다. 그 성대 다니던 학생이에요~

저는 수능만 치면 국어는 항상 3등급이었습니다. 6평과 9평에선 2등급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수능만 되면 3등급만 뜨더라구요. 올해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유현주쌤 현강을 들었습니다.

저는 비문학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이전까진 무조건 지문 이해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딱히 다른 스킬은 없었죠. 하지만 수능날엔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하나씩은 꼭 나오더라구요. 특히 작년에 가능세계 지문이 나왔었는데 이 지문을 첫번째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첫문단부터 이해가 안 되더니 결국 지문 전체가 꼬여버렸고 국어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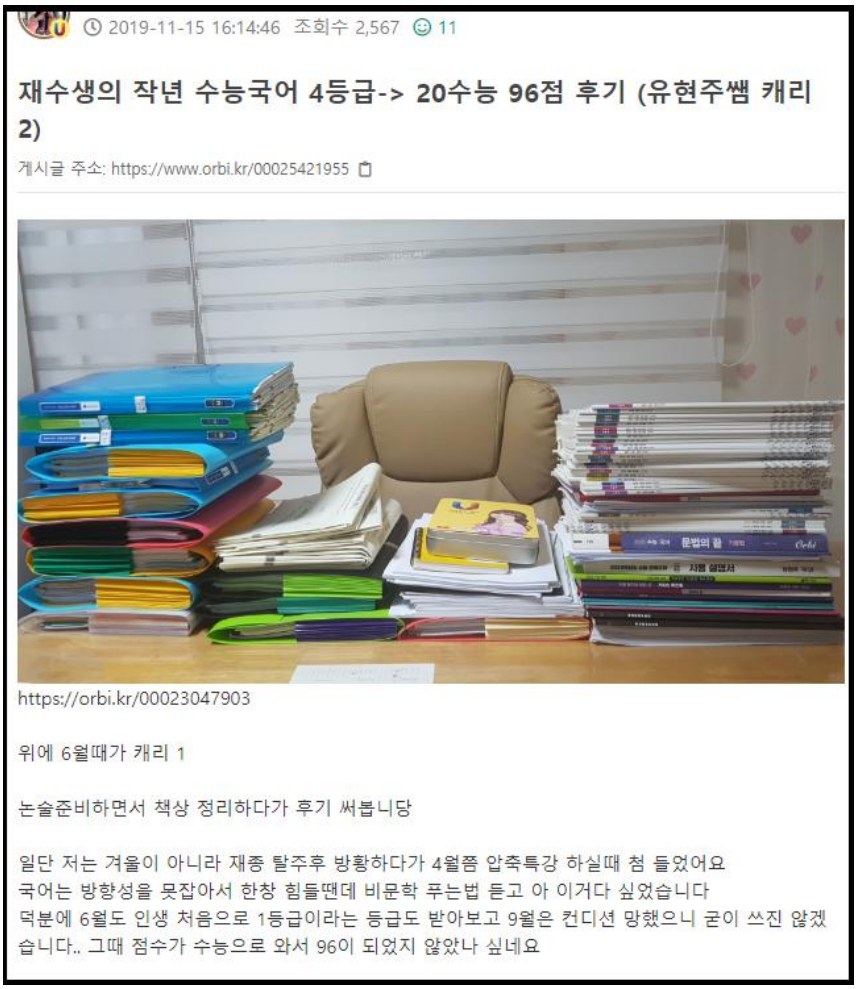
유현주쌤 수업을 듣고 글을 체계적으로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과감하게 넘어가는

법도 배웠습니다. 과감히 넘어가더라고 표시할 부분은 표시하고 중요한 곳은 힘 주며 읽으니 지문이 잘 읽히더라구요. 결국 이번 수능에선 처음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학 또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쌤이 체크하라는 부분은 체크하고 강조하신 부분은 강조해서 읽으니 시간도 단축되고 정확도도 올라갔습니다. 쌤만 따랐더니 이번 수능에서 문학을 다 맞았습니다.

수업 이외의 부분도 좋았습니다. 질문도 항상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상담도 잘 해주시고...무엇보다 자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막 이상한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비에스 연계 자료가 포함돼서 나오니 연계 공부도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맞춤 숙제도 주셔서 제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국어때문에 의대 최저를 맞춘 적이 없었는데 쌤 덕분에 이번에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술로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쌤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2019-11-15 16:14:46 조회수 2,567 11

재수생의 작년 수능국어 4등급-> 20수능 96점 후기 (유현주쌤 캐리 2)

게시글 주소: https://www.orbi.kr/00025421955

https://orbi.kr/00023047903

위에 6월때가 캐리 1

논술준비하면서 책상 정리하다가 후기 써봅니당

일단 저는 겨울이 아니라 재종 탈주후 방황하다가 4월쯤 압축특강 하실때 첨 들었어요
국어는 방향성을 못잡아서 한창 힘들땐데 비문학 푸는법 듣고 아 이거다 싶었습니다
덕분에 6월도 인생 처음으로 1등급이라는 등급도 받아보고 9월은 컨디션 망했으니 굳이 쓰진 않겠습니다.. 그때 점수가 수능으로 와서 96이 되었지 않았나 싶네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20학번 박재현 [19수능국어 4등급 → 20수능국어 1등급]

우선 저는 겨울이 아니라 재종 탈주후 방황하다가 4월쯤 압축특강 하실 때 첨 들었어요
국어는 방향성을 못잡아서 한창 힘들땐데 비문학 푸는법 듣고 아 이거다 싶었습니다
덕분에 6월도 인생 처음으로 1등급이라는 등급도 받아보고 9월은 컨디션 망했으니 굳이 쓰진 않겠습니다.. 그때 점수가 수능으로 와서 96이 되었지 않았나 싶네요

일단 2020 수능 후기는

화작: 사실 화작은 파이널 이감/한수때 10분 안쪽으로는 끝내려고 해서 시간은 많이 절약했어요 지문 길이가 좀 길긴 하던데 매주 화작의 끝 프린트 나눠주시던 것으로 일주일 전부턴 연습해서 무난하게 넘겼네요

문법: 현주쌤 문법의끝 최고..ㅜㅜ 대비가 안되었다면 한두개는 더 틀렸을거 같습니다. 사실 1회독을 수능 2주인가 3주전에 끝내서 제 문법이 완벽하다고는 말씀 못드릴듯 싶지만 14번 하나만 틀려서 다행이네요.

문학: 사실 문학이 유현주쌤 도움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이에요. 오르비에도 올리셨지만 종강때 고전시가 전문 분석들 나눠주셨는데 없는 시간에 뭘 더 중요시할까 하다가 가장 강조하신 월선헌만 전문 3번 본거같아요 옥루 나오는 부분 해석이 햇갈려서 수능 전날밤에도 질문드렸는데 그부분이 선지로 나올줄은 ㅜ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씨삼대록이나 자전거 도둑 정도는 정신없이 읽고 풀어서 기억도 잘 안나네요.

맨 뒷장 윤동주 시도 현주쌤 연계분석서 덕분에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적중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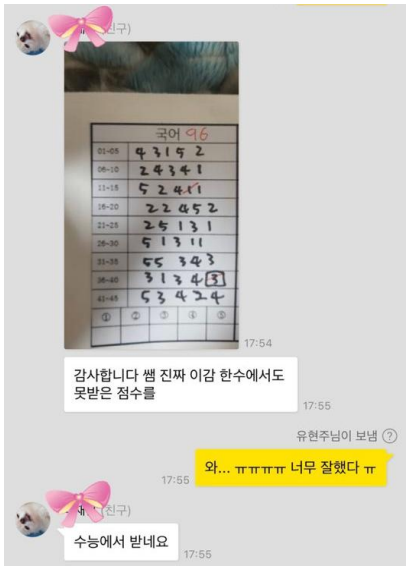
비문학: 작년에는 구조독해가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읽었는데 올해는 현주쌤이 방향성을 잘 잡아주신거 같아요 거시독해 미시독해부터 시작해서 파이널 이감/한수까지 가르쳐주신 행동영역이 수능때 정말 빛을 발한거 같네요 41번이었나 경제 보기 시간없어서 못풀었는데 결국 틀렸네요 이 지문 말고 배이즈랑 생명은 진짜 쉽다고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영역도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된 부분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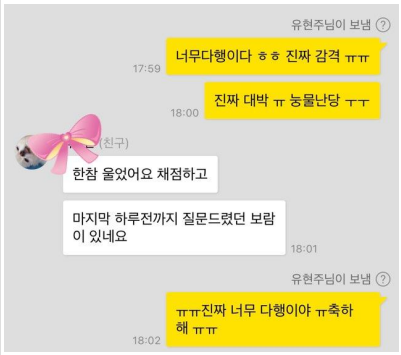
비문학에 대해서 더 말해보자면 꺽쇠, 괄호, 넘버링은 비문학 독해 방향성 못 잡는 분들에게 정말 많이 도움될거 같아요. 저도 무작정 줄치고 동그라미하면서 아무생각없이 읽던 학생중 한명이었지만 P&S구조, 물리적 구조와 논리적 구조, 어디까지는 이해하면서 읽고 어디부터는 보기문제 풀때 대조해서 봐야하는지 등 쌤 만나면서 독해실력 정말 많이 향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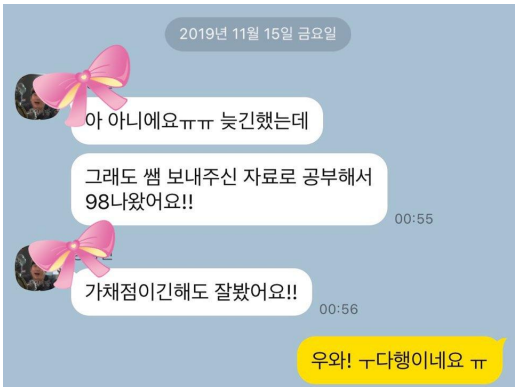
필력이 딸려서 두서없이 쓴 거 같지만 그래도 쌤 만나고 수험생다운 공부를 시작한거 같아 감사해서 후기 남겨봅니다. 매주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는 가끔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끝내려고 노력했던게 수능국어 96이라는 결과로 나온거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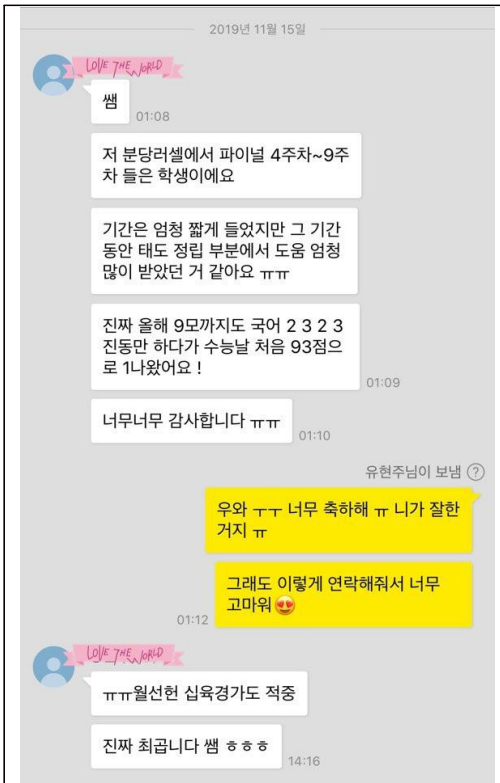
1년전 43245를 받고 한참 낮은 꿈을 꾸었던 제가 더 높은 꿈을 꿀수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혹시라도 국어의 갈피를 못잡고 있는 내년 수험생이 이 후기를 본다면 현주쌤 수업 강추합니다 저처럼 1년도 안되어서 성적 오르실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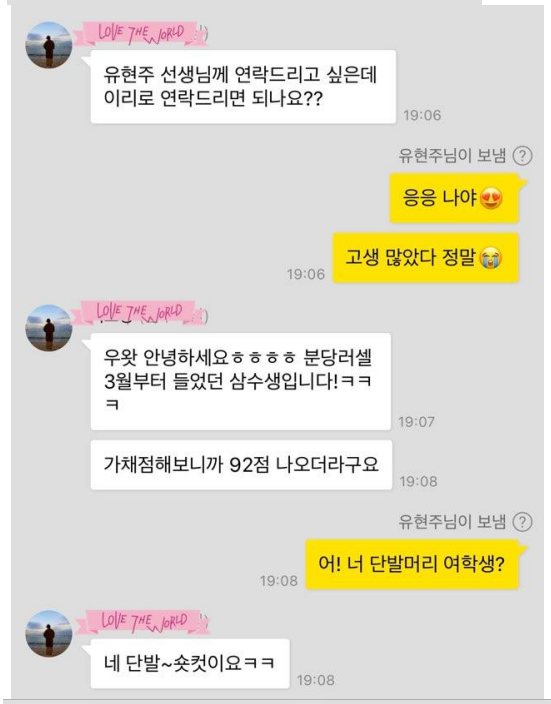
〈2020 수능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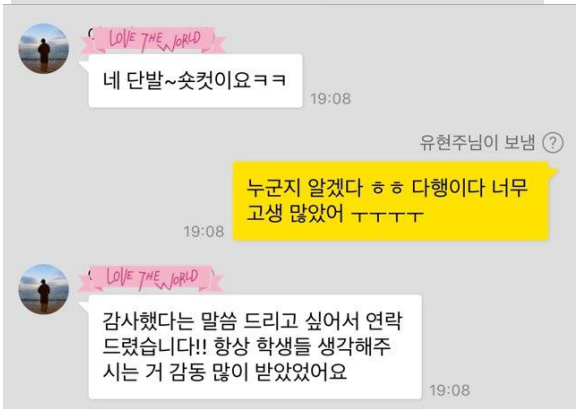












쌤 저 일요일 분당에서 맨날 두번째 자리 앉는 남학생이에요!
한번도 못받았던 100점을 수능날 받았어요!!
월선헌십육경가 적중으로 도움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관리 프로그램	

	1. 과정별 본 강의 진행 (미니모의고사응시 : 30분 + 독서, 문학, 화작+언어(문법) 개념강의 : 3시간) (+ 보충 영상 및 복습 영상은 모두 무료 제공) 2. 매일매일 질문 답변 및 Q&A 답변 (www.orbi.kr에서 매일 밤 질문받습니다. 답변이 밀리지 않아 상시 질문이 가능합니다.) 3. 매주 정규 과제 부여 & 동영상 강의로 복습 가능 4. 학생 개별 성적 분석 및 개인별 맞춤 틀린 문항 분석 자료가 나갑니다. 5. 1주일 내내 충분히 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공부량 + 현강 학생용 손글씨 분석서 제공
수업기간	[정규반] (토) ~ 수능까지 : PM 14:00 ~ 17:30 [추석특강] 2022. 9/9~10 (금~토) ① 수능특강 - 9/9(금) PM 18:30 ~ PM 22:00 ② 수능완성 - 9-10(토) PM 18:30 ~ PM 22:00

교재명	교재비 별도 안내	교재가격	교재비 별도 안내